

K-조선 상생금융 출범, 지역경제 활력 이끈다

- HD현대중공업 50억원, 하나은행 230억원 출연, 무보 우대 보증 지원
- 4,000억원의 우대보증으로 중소 조선 협력업체 금융부담을 해소한다

조선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4천억원 규모의 보증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1월 23일(금) 오전 울산시청에서 「조선 수출공급망 보증지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K-조선의 성과를 중소 협력업체, 그리고 지역과 함께 나누기 위한 상생 금융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HD현대중공업 대표, 하나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그리고 울산시장이 참석하였다.

이번 보증 프로그램은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함께 재원을 출연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을 지원하는 구조다. HD현대중공업과 하나은행이 총 280억원을 출연하며, 이를 바탕으로 무보는 4,000억원 상당의 우대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HD현대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최대 2.4%p 인하된 우대 금리로 최대 3년까지 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한편, 김정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이번 협약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금융기관,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한 모범적인 One-Team 협력 사례”라고 평가하고, “이번 HD현대중공업의 상생금융 지원 프로그램 사례가 조선 업계 전반으로, 동남권 조선밀집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만간 “중소조선과 기자재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K-조선 생태계 경쟁력 강화”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	책임자	과 장	김의중 (044-203-4330)
		담당자	서기관	염현호 (044-203-4332)
	무역정책관 수출입과	책임자	과 장	김종우 (044-203-4040)
		담당자	서기관	김애경 (044-203-4041)

참고

조선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 지원 협약 개요

□ 일시 : '26.1.23(금) 09:30~10:00 (30분)

□ 장소 : 울산광역시청 (2층)

□ 참석자

○ (산업부) 산업통상부장관

○ (지방정부) 울산광역시장

○ (협약기관) HD현대중공업, 하나은행, 무역보험공사

□ 주요내용

○ 조선산업 수출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

□ 세부계획

일 시	내 용
09:30-09:50(20')	• 행사 시작, 참석자 발언
09:50-09:55 (5')	• 협약서 서명(HD현대중공업-무보-하나은행 (산업통상부장관-울산시장 임석)
09:55-10:00 (5')	• 기념촬영 및 폐회